

News

모든 게 불안하다...은행에 뭉치든 더 몰린다

뉴스시스

5대 시중은행의 요구불예금 잔액, 지난 12월 기준 659조 7,362억원... 전월비 9조 9,897억원 증가
코스피 2926.72으로 전 거래일 대비 28.17포인트 하락에 비트코인도 5,000만원 대까지 하락... 투자 여건 악화로 당분간은 은행 예금 증가세 예상

'조삼모사' 우리은행...우대금리 되살린 만큼 가산금리 높여

연합뉴스

우리은행, 10개의 신용대출 상품 우대금리 최대 0.6%p, 주담대 우대금리 0.5%p 올려... 관계자, "작년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관리차 축소했던 우대금리를 일부 복원하는 것" 다만 우대금리 확대가 대출 금리 하락으로는 이어지지 않아... 가산금리를 변동금리상품 0.46%p, 고정금리상품 0.47%p 높였기 때문... 업계에서는 변동폭이 너무 크다는 우려

토스, '꼼수' 논란... 당국 "마이데이터 가입자 재동의 받아라"

조선비즈

금융당국, 토스 측에 마이데이터 가이드라인 위반 중 가입시킨 고객들 대상으로 재동 절차 거쳐야 한다고 권고... 금융보안원, 기능 적합성 심사에 위배되는 것 없는지 확인 중
마이데이터 연결 기관을 선택 과정 없이 일괄 연결하거나 정기적 정보 전송 동의를 필수 항목으로 포함하는 등의 사항들 지적받아... 금융권 내 불만 지속 제기 중

하나금융, 차기 회장 선임절차 착수...내달 중 확정

연합인포맥스

하나금융그룹, 오는 3월 김정태 회장의 임기 만료 앞두고 차기 회장 선임 절차에 돌입... 이달 중 20명 안팎의 내·외부 후보군 확정 계획
주요 후보로 함영주, 지성규 하나금융 부회장, 박성호 하나은행장 등이 거론... 지배구조 안정화에 기여할 인물 선임 기대

텔레마케팅 조직 떼어낸 동양생명... 도대체 왜?

머니S

동양생명, TM조직 떼어내 자회사 '마이엔젤금융서비스' 설립... 보험업계 최초 TM 판매자회사로 자본금 1,000억원으로 설립
비용적인 측면이 큰 것으로 분석... IFRS17 도입을 앞두고 회사 운영비 절감이 필수적.. 관계자는 시장변화 대응과 영업력 제고를 위한 차원으로 설명

'먹튀 논란' 류영준 카카오 대표내정자 사퇴...페이 대표는 유지

연합뉴스

류영준 카카오 공동대표 내정자, 자진 사퇴 의사 밝혀... 지난 10일 스톡옵션 행사한 지 한달 만
카카오페이는 3월 주주총회에서 새로운 대표 선임 절차 마무리까지 대표이사 자리 공백으로 두기 어려운 상황이라 대표직 유지할 것으로 결정

지난주 증권사 CP·전단채 15조2천억 발행...금주 만기 4조5천억

연합인포맥스

지난주 20개 증권사 발행 CP와 전자단기사채는 15조 1,880억원으로 나타나... 미래에셋증권, 3조 7,500억원 발행으로 최고
이번주 22개 증권사에서 만기 맞는 CP와 전단채는 4조 5,600억원... 미래에셋, 1조 1,500억원, 한국투자증권 6,100억원, NH 4,300억원 등으로 만기 예정

IPO 시장 연초부터 복직... 1월엔 어떤 종목 담을까

머니S

미래에셋증권, 지난해 기업 21곳 상장 주관하며 공모총액 8조 9,136억 3,400만원으로 압도적 1위... 2018년 이후 3년 만
풍부한 증시 유동성으로 개인투자자들의 참여 열기 뜨거워... 평균 일반 청약경쟁률 1180,87대 1... 15년만에 가장 치열한 경쟁률 기록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